

# 삼능·송촌건설 '법정관리' 신청

워크아웃 불가 판정에 삼산기공·목우강재 등 계열사 3곳 포함

법원, 현장실사 통해 늦어도 1개월내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정부의 1, 2차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 등 삼능 주력 기업들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 (주)삼산기공, 목우강재, 송촌건설 등 5개 관계회사가 이날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은 최근 금융기관협의회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된 상황이어서 한후 기업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삼능건설은 이로써 1차 구조조정 심사에서 C등급을 받은 14개 건설·조선

사 가운데 워크아웃에 실패한 첫 업체가 됐다.

이들 기업은 신청서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관련 회사들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돌고 있다"면서 "채무 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능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표면적인 이유는 전날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불가 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전날 광주은행을 비롯한 삼능건설의 55개 채권금융기관의 1차 협의회 결과 채권단 내부 이견으로 워크아웃 결정이 결렬됐다.

삼능건설은 이날 회의에서 ▲2011년까지 채무이행 유예 ▲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 ▲채무이자·원금 탕감 등을 요구했으나, 채권단의 찬성률이 워크아웃 개시 요건인 75%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금융권에는 삼능건설이 이날자로 막아야 할 어음이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 실패 하루 만에 전격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삼능건설의 금융권 채무는 광주은행 260억원을 포함해 900억원대에 달하고 어음도 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능건설은 중국 청도 골프장 등 해외 법인 매각 등으로 자금난 해소를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생 신청으로 이들 기업의 우선 관리권은 기존 금융기관 위주의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넘겨지며, 채권·채무조사 권한도 법원의 몫이 됐다.

광주지법은 이 사건을 파산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부장판사 이한주)에 배당했다. 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 대한 채무자 심문과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한 달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능건설에 대한 회의는 대한민국 법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태에서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회사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 채무를 갚아가게 된다.

회생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대표·인사권을 갖게 되며, 삼능의 자산 매각과 투자 여부 등이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회의 경우 회생 불능이라고 판단될 경우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



송기진 광주은행장(가운데 오른쪽)과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있다.

## 光銀·신보기금, 지역 中企에 600억 특별지원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600억원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31일 본점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안택수 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 동력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신보에 2010년 말까지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6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지방은행이 신보에 특별 출연하는 것은 광주은행이 처음이다.

송 행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출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지방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신보에 특별출연을 함으로써 상생협력의 모범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신보는 협약보증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제2금융권 예금 몰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09년 1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액은 5천1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3천821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보면 보통예금 등 시사입출식 예금이 급감하면서 은행에서는 전달(-4천659억원)에 이어 1월에도 4천768억원이 빠져 나갔다.

반면 금리하락에 따른 반사효과와 주식형 펀드 및 MMF 증가, 비과세 예금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단위농협·자산운용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는 9천868억원이나 몰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은행에 자본확충펀드 4조원 수혈

### 광은·국민은행 등 8곳

광주·국민·우리은행 등 시중 8개 금융기관에 4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수출됐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자본확충펀드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모두 3조9천560억원의 1차 자본확충펀드 자금을 이날 지급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1조원, 농협이 7천500억원, 하나은행이 4천억원, 경남은행이 2천320억원, 광주은행이 1천740억원, 수협이 1천억원, 우리금융지주가 3천억원을 받았다.

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신청한 우리

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요청했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를 절반씩 나눴다.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신청했다.

만기 30년 이상 하이브리드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정기 기준자본(Tier1)으로 인정 받고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BIS 비율을 정기 보완자본(Tier2)로 인정 받는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쯤 자본확충펀드를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등 모두 2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300여개 협력업체 연쇄 피해

### 광주상공회의소 지도부 변동 관심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삼능건설을 포함한 5개 계열사가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예상된다.

광주시 등은 300여개 협력업체들의 연쇄피해와 이들 업체가 시공중인 건설 현장의 공기·지연 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따라 이승기 삼능건설 회장의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에도 문제가 생겨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일부 공기 지연 = 삼능건설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 북구 첨단

지구 6블럭(면적 6만6천839㎡)에 시공중인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1천232세대) 공사는 현재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공은 공기 지연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송촌종합건설이 건설중인 '벌교~주암간 도로공사(7.5km)'의 경우 공기 지연 등이 초래되면서 밭주처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특별 관리에 나섰다.

삼능 등은 이에 앞서 ▲아등산 관광단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의 시공권은 다른 기업으로 넘긴바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삼능건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여파가 다른 건설사로 전이되면서 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자격도 문제 = 광주상공회의소 정관 37조 4항은 '체무

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는 의원자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삼능의 기업회생 절차를 받아들일 경우 삼능건설 대표인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이 상공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이 회장은 상공의원 자격을 잃고 자동으로 상의회장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광주상의는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삼능의 기업회생 절차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1개월이 지나기 전에 회장 직무대행을 내세우거나, 자선거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재호·김지율기자 lion@

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신청한 우리

'좋은 보험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국제보험기**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경고는 경고를 경고로 경고하는 경고입니다.  
특히 주정되는 경고입니다.

## 배터리 재생의 신기술



2009년 3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 고성장은 100% 재생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전국 시군구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1588-1521-6666(대)

전시회 및 전시회 출전, 고성장은 100% 재생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전국 시군구 대리점 모집

## 대호온돌첨대/까사갤러리 광주신세계백화점 입점기념 특가판매

여름 대호온돌나라 온돌대를 광주신세계 광장 1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돌대도 망월이 있습니다. 망월 온돌대-대호온돌나라  
부모님 흐드려불로 죄고입니다.

Ondolnara